



‘불어라 미풍아’ 구원등판 임수향

# “중간투입? 위화감 없어요”

오지은 부상에 13회부터 교체 투입

“어? 배우가 바뀌었네?” MBC TV 주말극 ‘불어라 미풍아’의 시청자들은 지난 8일 교체를 가웃했다. 인터넷을 통해 배우 교체 사실을 접하지 못한 많은 시청자는 탈북자 출신 악녀 박신애를 연기하던 배우가 바뀐 것을 보고 당황했다. 전혀 다른 얼굴의 배우로 교체됐지만, 교체된 배우는 물론이고 다른 배우들도 처음부터 그가 박신애 역할을 연기해왔던 것처럼 연기했다.

드라마 방송 중 배우가 교체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었을까.

◇부상·제작진과의 충돌 등으로 교체= ‘불어라 미풍아’의 경우는 그나마 드라마 초반이었고, 아직 박신애 역이 그리 부각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혼란이 크지는 않았다.

사연은 배우의 부상이다. 박신애를 연기하던 오지은이 촬영 중 발목 전방인대가 파열돼 전지 8주의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게 되면서 지난 2일 12회를 끝으로 하차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인 8일 13회부터 임수향이 바통을 이어 박신애가 됐다.

2011년 10월에는 MBC TV ‘나도, 꽃’의 남자 주인공이 방송 직전 교체됐다.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던 김재원이 첫 촬영날 스쿠터를 타다 넘어지면서 어깨를 크게 다친 것. 당시 김재원이 타고 있던 스쿠터가 정지상태에서 급발진했고,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스쿠터가 90도 가까이 각도로 공중으로 들리면서 김재원의 어깨가 탈골됐다.

제작진은 일주일여 만에 배우 윤시윤을 김재원의 대타로 캐스팅하는데 성공하며 예정된 스케줄에 맞춰 방송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SBS TV ‘다섯손가락’의 주인공이 방송 전 티아라 은정에서 배우 진세연으로 교체됐다. 은정은 촬영까지 진행했지만, 제작진과의 충돌로 인해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당시 제작진은 “재난 사정에 대한 장시간 논의와 고심 끝에 은정의 하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 일각에서 티아라 왕다실 등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그에 앞서 2002년에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KBS 2TV 대하사극 ‘명성황후’의 타이틀 롤이 방송 후반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

2001년부터 명성황후를 연기해오던 이미연이 출연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영화 출연을 위해 제작진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79회에서 하차했다.

◇드라마 조기종영vs전화위복=방송 도중, 혹은 직전에 배우가 교체된다는 것은 분명 악재다. 그래서 드라마 시작도 하기 전에 맥이 빠지고는 하는데, 반대로 구원투수로 나선 배우로 인해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다.

1970~80년대는 의외로 배우 교체가 적지 않았는데, 현재 KBS 2TV 주말극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 출연 중인 박준금이 대표적이다. 박준금은 경희대 무용과 재학 중이던 1980년 ‘국풍80’ 행사에 참여했다가 KBS PD의 눈에 띈 인연으로 2년 뒤인 1982년 KBS 연속극 ‘순애’의 주인공으로

로 전격 발탁됐다.

당시 ‘순애’는 여주인공이었던 원미경이 개인 사정으로 16회 만에 하차하면서 대타를 급하게 구해야 했고, 박준금은 ‘국풍80’ 때 만난 PD의 추천으로 카메라 테스트를 받자마자 다음날부터 바로 촬영에 들어갔다. 생짜 신인이었지만, 박준금은 ‘순애’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2002년 ‘명성황후’ 역시 최명길이가 이미연의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드라마에 보탬이 됐다. 최명길이가 40대 이후의 명성황후를 연기하게 되면서 원숙미를 한껏 살리면서 정치적인 기반과 외교적인 능력이 축적된 ‘철의 여인’의 면모를 자연스럽게 선보인 것이다.

‘불어라 미풍아’의 경우도 임수향의 합류로 활력을 얻게 됐다.

방송 도중 배우를 교체하게 되면 급박한 상황에서 대타를 구하기가 어려워 대개 대타는 원 배우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신인급이 맡게 된다. 그런데 ‘불어라 미풍아’는 얼마 전 KBS 2TV ‘아가씨와 다사’를 성공적으로 끝낸 임수향이 대타로 나서면서 시청자로서는 더욱 친근한 배우를 만나게 된 셈이다.

임수향의 소속사는 11일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하루 반나절 만에 결정을 해야 했는데 임수향이 많은 고민을 했다”며 “대타는 어떻게 해도 본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민을 했지만, 배우로서 악녀 역이 처음이라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고민 끝에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말은 배역 중 가장 순수한 캐릭터”

영화 ‘가려진 시간’ 성민 역 강동원  
엄태화 감독 첫 상업영화 주목

“몸은 어른이지만, 소년의 감성을 가진 역할로. 제가 지금까지 맡은 배역 중 가장 순수한 캐릭터입니다.” 영화 ‘가려진 시간’에서 주연을 맡은 강동원은 11일 압구정 CGV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이같이 배역을 설명했다.

‘가려진 시간’은 화노도라는 공간에서 의문의 실종사건이 일어난지 며칠 만에 어른이 되어 나타난 성민(강동원)과 유일하게 그를 믿어주는 소녀 수린(신은수)이 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그린 감성 판타지 영화다. 기존 한국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설정과 소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투기’로 주목받은 엄태화 감독이 처음으로 메가폰을 잡은 상업영화다.

강동원은 “30대이지만 10대 소년의 순수한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 어린아이와 같은 눈빛과 대사 톤을 보여주는 데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관객들에게 마지막까지 의심과 믿음을 줘야 하는 캐릭터여서 쉽지 않았다”면서 “초반에는 대사 톤을 3가지로 준비해 적정선을 고르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연합뉴스

엄 감독은 이번 영화를 위해 처음부터 강동원을 섭외 1순위로 올렸다고 했다.

엄 감독은 “강동원의 전작을 보면서 서늘하면서도 서글픈, 풋풋한 개구쟁이의 모습이 함께 보여 제격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강동원은 전작 ‘검은사제들’에서 신부, ‘검사의 전’에서는 전과 9범의 꽃미남 사기꾼으로 변신한 데 이어 이번엔 또다시 파격적인 역할에 도전했다. 특히 신인 감독의 작품에 연이어 출연 중이다.

강동원은 “비슷한 배역을 하면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어도 재미있는 것이 좋다”며 “시나리오가 좋고 감독을 직접 만나 확인이 서면 신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출연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강동원의 상대역을 맡은 신은수는 2002년생으로, 300대 1의 오디션을 뚫고 캐스팅됐다. 이번 작품이 첫 데뷔작이며, 강동원과도 스무 살의 나이차가 난다.

엄 감독은 “큰 파도 앞에서 성인 남자와 소녀가 서 있는 그림을 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다 보니 지금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다”며 “진정한 믿음과 그 믿음의 근간은 순수한 사랑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엄 감독은 최근 영화 ‘밀정’으로 얼굴을 알린 배우 엄태구의 형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KBS1   | KBS2                            | MBC   | KBC / SBS  |
|----|--|---------------------------------|---|--|
| 6  | 00 KBS 뉴스광장  |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 20 광주MBC 뉴스투데이<br>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 30 KBC 모닝와이드   |
| 8  | 25 아침미당  | 00 KBS 아침 뉴스타임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
| 9  | 30 KBS 뉴스  |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br>40 여유만만 | 30 MBC 생활 뉴스<br>45 기본 좋은 날                    | 10 좋은아침  |
| 10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40 지구촌 뉴스                       |   | 10 SBS 뉴스<br>25 SBS 생활경제<br>40 KBC 생활뉴스                |
| 11 | 00 강연 100℃ 라이브<br>55 감성애니 하루(재)                                | 00 수목드라마 (공황 가는 길)(재)           | 00 앙코르 MBC스페셜 (법정, 상식을 뒤집다 지병의 누명 1부)         | 00 TV블로그 품지락<br>05 위대한 유산<br>30 민명방송 공동기획 (물든 생명이다)    |
| 12 | 00 KBS 뉴스 12   |                                 | 00 MBC 정오뉴스<br>20 수목드라마 (소평왕 루이)(재)           | 00 SBS 12뉴스<br>30 KBC 12뉴스<br>50 TV블로그 품지락<br>55 데마스페셜 |
| 1  |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br>05 KBS 네트웍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br>55 별별가족 | 00 신인 리얼 도전기 루키(재)              | 30 경제매거진 M스페셜                                 | 55 닥터 365  |
| 2  | 00 제97회 전국체육대회   | 00 KBS 뉴스타임<br>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 20 텔레몬스터(재)<br>30 드림 주니어 스페셜                  | 00 열린 TV 시청자재상   |
| 3  | 55 튜브생체제   |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br>30 TV 유치원      | 00 MBC 뉴스 10<br>10 헬로킴지 이하 동물탐험대<br>55 모두모두 쇼 | 00 3시 뉴스브리핑  |
| 4  | 00 4시 뉴스집중   | 00 영상앨범 신(재)<br>30 2016 영화의 바다로 | 25 텔레몬스터(재)<br>30 리얼스토리 논                     | 30 고향이 보인다   |
| 5  | 00 KBS 뉴스 5<br>30 전곡을 달린다<br>40 남도 지오그래피                       | 00 꼬마이사 공도령<br>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 00 MBC 이브닝 뉴스                                 | 00 매슬론 뜻똥<br>30 SBS 뉴스퍼레이드<br>50 KBC 저녁뉴스              |
| 6  | 00 6시 내고향<br>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 00 KBS 뉴스타임<br>20 2TV 생생정보      | 10 생방송 ‘빛날’<br>05 닥터 365(재)<br>15 튜브콘서트       | 05 날씨와 생활<br>10 닥터 365(재)<br>15 튜브콘서트                  |
| 7  | 00 KBS 뉴스7<br>35 필통  |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br>55 MBC 뉴스데스크             | 15 TV 블로그 품지락<br>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
| 8  | 25 일일연속극 (별난가족)  | 30 글로벌24<br>55 구석구석 숨은 돈 찾기     |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 00 SBS 8 뉴스<br>35 KBC 8 뉴스<br>55 영재 발굴단                |
| 9  | 00 KBS 뉴스9   |                                 | 30 리얼스토리 논                                    |  |
| 10 | 00 시사토론 ‘10’<br>55 숨터  | 00 수목드라마 (공황 가는 길)              | 00 수목드라마 (소평왕 루이)                             | 00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                                      |
| 11 | 00 KBS 뉴스라인<br>40 인간탐구 위대한 질문                                  | 10 추적 60분                       | 10 2016 DMC스페셜<br>상임에서 놀자 1부                  |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
| 12 | 30 동행(재)   | 10 스포츠 하이라이트<br>35 세상의 모든 다큐    | 40 MBC 뉴스 24                                  | 30 나이트 라인  |

| EBS1   |   |  |
|--|---|--|
| 05:00 EBSe 생활 영어<br>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알프스산맥 스위스 용포우 마터호른)  | 09:40 부모-위대한 엄마<br>10:30 한국기행<br>10:50 최고의 요리비결 (달고미 고추장찌개와 콩나물 파 무침)   | 14:55 모피와 친구들<br>15:05 두키탐험대<br>15:20 꼬마기사 마이크<br>15:35 요술상자(2)<br>15:45 레이디버그(재)  |
| 06:00 한국기행(재)<br>06:20 세계테마기행(재)<br>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br>07:30 뽀롱뽀롱 뽀로로<br>07:45 꼬마버스 타요<br>08:00 뽀롱뽀롱 유치원 1~3<br>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br>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br>09:15 시계마을 타키톱<br>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 11:20 세계테마기행(재)<br>12:00 EBS 정오 뉴스<br>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br>12:40 지식체널 e<br>12:45 EBS 초대석<br>13:40 오 마이 미래 2035<br>13:50 그림을 그려요(2)<br>13:55 코코몽(재)<br>14:25 책과 팟 | 20:40 다큐 오늘 (재주전 용머루)<br>20:50 세계테마기행 (대륙의 천하절경, 광시 3부 해상 실�크로드의 진주, 베이하이)<br>21:30 한국기행 (귀뚜라미 투어 3부 그중 그대를 만나)<br>21:50 EBS 다크 프리덤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br>22:45 극한직업 (인도네시아 커피 농장)<br>23:35 장수의 비밀<br>24:05 세상의 모든 법칙<br>24:10 EBS 초대석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2일 (음 9월 12일 丁卯)

|   |   |   |  |
|---|---|---|--|
| 子 | 48년생 핵심 가치를 집약할 줄 아는 요령이 필요하다. 60년생 목적이식을 분명히 해야만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72년생 중저대 한 일이 보이면 만전을 기해야 한다. 84년생 가장 직접적인 것이 제일 실속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47, 19    | 午 | 42년생 현대가 매우 불리하니 재빨리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좋다. 54년생 중저대면 때에 반집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발생한다. 66년생 미면에 대처한다면 화도 막을 수 있다. 78년생 노력에 비해 대가가 클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5, 17    |
| 丑 | 49년생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어 있다. 61년생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 말고 반드시 지금 보충해야만 한다. 73년생 대화로써 풀어나가야만 할 것이다. 85년생 돈이 관건이다. 행운의 숫자 : 38, 93             | 未 | 43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만 하느니라. 55년생 직접적인 것에 집중함이 장래성도 있고 실용적이다. 67년생 거침없는 행보를 내딛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79년생 국면의 전환이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67, 28        |
| 寅 | 50년생 거시적인 관점이 용이하다. 62년생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매우 불길하다. 74년생 중요하다면 번거롭더라도 특별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86년생 문제점이 있다면 경험이 많은 이를 찾아가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85, 58        | 申 | 44년생 넘어가려 하지 말고 밝혀야만 하느니라. 56년생 반드시 하나하나씩 점검해 봐야 할 시기이다. 68년생 아직 실행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때다. 80년생 얼마나 근사치에 접근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2, 27 |
| 卯 | 51년생 주변의 여건과 조화를 이뤄야만 시의적절한 관세를 이루게 된다. 63년생 투명해야만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75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87년생 기대는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3, 09 | 酉 | 45년생 표현의 방법과 기교에 정성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57년생 내버려 두어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형상이로다. 69년생 믿음이 간다면 선택해도 무방하다. 81년생 계획대로 조처한다면 성공의 길을 이끄는 열쇠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0, 83 |
| 辰 | 40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52년생 자기모순에 빠지면 헤어지지 못하리라. 64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마라. 76년생 마음을 비우면 그만이다. 88년생 목표를 향해서 발돋움을 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74, 10      | 戌 | 46년생 집착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58년생 의외로 앞당겨져서 진행될 수도 있는 대국이다. 70년생 눈에 띄지 않게 비밀리에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82년생 무난하게 진행되면서 안정을 찾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1, 99     |
| 巳 | 41년생 혼란스럽겠다. 53년생 습관적인 반복보다 창의적인 시도가 낫다. 65년생 의식의 전환이 용이하다. 77년생 반드시 소리대로 처리해야만 한다. 89년생 관점을 달리한다면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는 소지가 크다. 행운의 숫자 : 15, 26    | 亥 | 47년생 양자를 비교해보면 즉시 알 수 있으리라. 59년생 인식을 달리한다면 일취월장한다. 71년생 밤심하더라도 예정되었던 궤도를 이탈하리라. 83년생 마음에 걸리더라도 집착하지 말고 대범하게 넘어가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60, 29      |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연!” ☎010-9790-8237